

일부 대학생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차이점에 대한 인지도

이한숙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Awareness of Difference between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erapy among Some University Students

Han Suk Le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physical therapy and difference between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erapy.

Methods: A total of 183 subjects who gave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at five universities in Gyeonggi-do were randomly selected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012 to July 2013 by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3 questions. Frequency analysis for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y, anticipated cost, awareness of difference, and cross tab analysis for correlation with each item were used.

Results: Participants recognized the academic ability, and the department for management of physical therapist licensing very well. The kindness and workmanship of physical therapists were average.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of physical therapy, most participants received a hot pack and electrical therapy at a local clinic and satisfaction with treatment was high.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recognized a difference between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erapy was high, however, they misunderstood only electrical therapy for physical therapy and they recognized the exercise method of physical therapy for rehabilitation therapy. No correlation of the awareness of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erapy and the awareness of physical therapy, experience, and anticipated cost, except the major of students.

Conclusion: We found that people can misunderstand exercise therapy for rehabilitation therapy even though they have good awareness of physical therapy. Therefore, a physical therapist has to find the ways to express their identity while working.

Key Words: Physical therapy, Awareness, Rehabilitation, Electrical therapy

1. 서론

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체장애를 극복하여 최적의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재활 팀이 함께 참여 하며, 의료적 재활에 관련된 직업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포함 된다.¹

물리치료는 태양열, 광선, 물, 전기 운동 등 물리적인 인자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치료적 접근법의 특성에 따라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운동치료, 정형 도수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운동치료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과 기능적 제한을 체계적이고 계획된 움직임이나 활동으로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치료적 운동을 말한다.^{2,3} 그러나, 최근 물리치료의 한 분야인 운동 치료를 물리치료와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통증 치료는 물리치료로 운동치료는 재활치료로 표기를 하기도 한다. 이것은 물리치료사의 직무분석에 오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Received Sep 11, 2013 Revised Sep 11, 2013

Accepted Oct 15, 2013

Corresponding author Han Suk Lee, Leehansuk21@hanmail.net

Copyright © 2013 The Korea Society of Physical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의료 검색자료인 Pubmed에서 재활치료(rehabilitation therapy)의 용어를 검색해보면 2013년 기준 60건에 해당되며 rehabilitation을 따로 사용하며 therapy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Kiss 논문 검색에서 재활치료를 검색 해보면 재활치료의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은 406건, DBpia의 경우 90건에 해당된다. 이들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치료의 개념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와 관련된 운동치료와 전기치료를 재활치료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작업치료, 의공학, 원예, 수의학, 기계공학 등에서도 재활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재활치료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치료별 고유한 특성을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외국 사례에서는 재활치료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재활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한국 사례에서 재활치료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재활치료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수중 재활치료, 뇌졸중 또는 편마비 재활치료, 스포츠 재활치료, 장애 아동 재활치료, 재활승마치료, 중추신경전문재활치료, 재활치료사업 등 재활치료라는 학문을 하는 재활치료사라는 전문직종이 있는 듯 보인다. 더욱이, 네이버의 질문 코너에는 진로를 고민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재활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한다. Moon¹의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사의 용어 정의를 재활에 관련된 직종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활의 의미는 신체 장애를 극복하여 최적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성인환자들의 경우는 기능적인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이후 사고로 손상을 받았으므로 재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소아 환자의 경우 기능적인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재활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하여 성인 치료 시에는 rehabilitation을 소아 치료 시에는 habili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보건의료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역할 수행이 기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전문직관이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4,5} 심리적으로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줌으로 환자의 질병 치유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치료사의 자긍심은 매우 중요하다.⁶

Chung 등⁷은 치과 위생사의 경우, 사회의 인식부족과 치료 진료 서비스 제공환경에서 느끼는 불만족으로 전문직으로 정체성이 낮아져서 구강보건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적인 올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물리치료의 일부인 운동치료를 재활치료라고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물리치료는 단순한 통증 치료만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가 가질 수 있는 전문가적인 자긍심을 줄여 주기 때문에 환자의 질적 향상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실제로 물리치료와 재활 치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점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봄으로써 물리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재활과 물리치료용어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2) 일반적 특성과 재활 치료와 물리치료의 용어의 차이 인지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 3) 물리치료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용어의 차이 인지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 4) 물리치료의 경험 및 기대비용에 따른 용어 차이 인지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5개 대학의 대학생 중 물리치료 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학생들 중 물리치료의 경험이 있는 자를 편의 추출하였으며, 물리치료의 이해도와 재활치료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에 응답한 183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측정방법

1) 측정도구

설문지는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연구용으로 15문항을 작성하여 경기도 E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30부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2문항을 삭제하였다. 본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2항, 물리치료에 대한 인지도 4문항, 물리치료에 대한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 Type | Frequency (person) | Percent (%) |
|-----------------|--------------------|--------------------|-------------|
| Gender | Man | 92 | 50.3 |
| | Female | 91 | 49.7 |
| Major | Related health | 65 | 35.5 |
| | Non related health | 118 | 64.5 |
| Total | | 183 | 100 |

Table 2. The mean comparison of %RVC of neuromuscular activation at the different applied vibration frequencies in quiet standing

| | Type | Frequency(person) | Percent (%) |
|-------------------------|--|-------------------|-------------|
| Awareness of difference | Know | 100 | 54.6 |
| | Unknown | 83 | 45.4 |
| | Improve function | 22 | 24.4 |
| | Similar with physical therapy | 3 | 3.3 |
| | Long term therapy | 2 | 2.2 |
| | More comprehensive than physical therapy | 3 | 3.3 |
| Rehabilitation therapy | Severe injury treatment | 21 | 23.3 |
| | Self exercise | 8 | 8.9 |
| | Treatment for athlete | 1 | 1.1 |
| | Treatment for body | 3 | 3.3 |
| | Neurological treatment | 1 | 1.1 |
| | Pain treatment | 9 | 10 |
| | Electrical therapy | 5 | 5.6 |
| | Simple treatment | 1 | 1.1 |
| | Light injury treatment | 8 | 8.9 |
| | Passive treatment by therapist | 8 | 8.9 |
| Physical therapy | Massage | 1 | 1.1 |
| | Orthopedic treatment | 1 | 1.1 |

경험과 비용에 대한 5문항, 재활치료와의 차이에 대한 문항 2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점 인식에 대한 2문항에서는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식 문항과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에 대한 주관식 서술형 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차이점에 대한 인지도의 설문지에 대한 선행 논문이 없으므로 인하여 예비 설문지의 응답내용과 Chung 등⁷과 Rhee 등⁸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항목에 따른 신뢰도 계수

(chronbach)는 항목에 비하여 사례수가 적어서 0.07로 낮았다.

3. 통계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설문지의 특성을 고려,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window version 17.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물리치료에 대한 인지도, 경험, 비용, 차이점 기술에 대한 각각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영역이 차이점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학력, 물리치료를 받은 장소, 받았던 물리치료의 형태에 대한 문항은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

Table 3. Awareness of difference about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erapy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

| Variables | | Awareness of difference | | | χ^2 | p |
|-----------|--------------------|-------------------------|----------|-----------|----------|-------|
| | | Know | Unknown | Total | | |
| Gender | Male | 50(50) | 42(50.6) | 92(50.3) | 0.01 | 0.941 |
| | Female | 50(50) | 41(49.4) | 91(49.7) | | |
| Subtotal | | 100(100) | 83(100) | 183(100) | | |
| Major | Related health | 28(28) | 37(44.6) | 65(35.5) | 5.44 | 0.00 |
| | Non related health | 72(72) | 46(55.4) | 118(64.5) | | |
| Subtotal | | 100(100) | 83(100) | 183(100) | | |

Table 4. Awareness of difference about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erapy according to understanding of physical therapy Frequency (percent)

| Variables | | Awareness of difference | | | χ^2 | p |
|-------------|------------------|-------------------------|----------|-----------|----------|------|
| | | Know | Unknown | Subtotal | | |
| Academy | High school | 2(1.9) | 2(2.2) | 4(2.2) | 0.04 | 0.85 |
| | College | 41(39.1) | 36(40.5) | 77(39.7) | | |
| | University | 45(42.9) | 45(50.6) | 90(46.4) | | |
| | Institute | 2(1.9) | 2(2.2) | 4(2.2) | | |
| | Unknown | 15(14.2) | 4(4.5) | 19(9.8) | | |
| Subtotal | | 105(100) | 89(100) | 194(100) | | |
| Lisence | Government | 77(77.8) | 68(81.9) | 145(79.7) | 1.17 | 0.77 |
| | Local government | 4(4) | 3(3.6) | 7(3.8) | | |
| | Institute | 1(1) | 0(0) | 1(1) | | |
| | Unknown | 17(17.2) | 12(14.5) | 29(15.9) | | |
| Subtotal | | 99(100) | 83(100) | 182(100) | | |
| Workmanship | Very high | 4(4) | 6(7.2) | 10(5.5) | 3.17 | 0.53 |
| | High | 48(48) | 32(38.6) | 80(43.7) | | |
| | Normal | 42(42) | 41(49.4) | 83(45.4) | | |
| | Low | 5(5) | 4(4.8) | 9(4.9) | | |
| | Very low | 1(1) | 0(0) | 1(0.5) | | |
| Subtotal | | 100(100) | 83(100) | 183(100) | | |
| Kindness | Very high | 5(5) | 10(12) | 15(8.2) | 5.60 | 0.23 |
| | High | 48(48) | 30(36.1) | 78(42.6) | | |
| | Normal | 43(43) | 38(45.8) | 81(44.3) | | |
| | Low | 4(4) | 4(4.8) | 8(4.4) | | |
| | Very low | 0(0) | 1(1.2) | 1(0.5) | | |
| Subtotal | | 100(100) | 183(100) | 183(100) | | |

Table 5. Awareness of difference about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erapy according to experience of physical therapy

| Variables | | Awareness of difference | | | χ^2 | p |
|-------------------|----------------------|-------------------------|----------|-----------|----------|------|
| | | Know | Unknown | Subtotal | | |
| Place | Hospital | 9(8.7) | 15(17.2) | 24(12.6) | 3.28 | 0.07 |
| | Clinic | 81(78.6) | 65(74.7) | 146(76.8) | | |
| | Traditional clinic | 11(10.8) | 6(6.9) | 17(8.9) | | |
| | Others | 2(1.9) | 1(1.2) | 3(1.6) | | |
| Subtotal | | 103(100) | 87(100) | 190(100) | | |
| Satisfaction | Very high | 10(10) | 6(7.2) | 16(8.7) | 2.64 | 0.45 |
| | High | 50(50) | 40(48.2) | 90(49.2) | | |
| | Normal | 36(36) | 29(34.9) | 65(35.5) | | |
| | Low | 4(4) | 8(9.6) | 12(6.6) | | |
| | Very low | 0(0) | 0(0) | 0(0) | | |
| Subtotal | | 100(100) | 83(100) | 183(100) | | |
| Type of treatment | Electric treatment | 71(38) | 53(37) | 124(37.6) | 1.06 | 0.30 |
| | Hot pack | 67(35.8) | 58(40.6) | 125(37.9) | | |
| | Exercise | 15(8) | 7(4.9) | 22(6.7) | | |
| | Orthopedic treatment | 14(7.5) | 10(7.0) | 24(7.3) | | |
| | Massage | 18(9.6) | 14(9.8) | 32(9.7) | | |
| | Others | 2(1.1) | 1(0.7) | 3(0.9) | | |
| Subtotal | | 187 | 143 | 330(100) | | |
| Anticipated cost | Below 30,000 won | 36(36) | 33(40.7) | 69(38.1) | 2.08 | 0.56 |
| | 3~40,000 won | 33(33) | 27(33.3) | 60(33.1) | | |
| | 40,000 won | 17(17) | 15(18.5) | 32(17.7) | | |
| | Above 40,000 won | 14(4) | 6(7.4) | 20(11) | | |
| Subtotal | | 100(100) | 81(100) | 181(100) | | |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별은 남자 50.3%, 여자 49.7%로 남자가 더 많았으며, 보건계가 35.5%, 비보건계가 64.5%로 비 보건계가 학생이 더 많았다(Table 1).

2.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 인지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점의 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54.6%이며 차이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45.4%이었다(Table 2). 재활치료란 무엇인지 자유

롭게 기술을 하게 한 결과 손상된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로 답한 경우가 23.4%, 심한 손상일 경우로 답한 경우가 2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는 통증치료 10%과 전기치료 5.6%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활 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 인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의 인지도 차이인 지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이 차이점 인식과는 연관성이 없었지만 전공에 따라서는 차이점 인식과 연관성이 있었다($p < 0.05$). 또한, 비보건계 학생들이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차이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는 72%로 보건계 학생들의 28%보다 높았다(Table 3).

4.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재활 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 인지

물리치료사에 대한 학력 인지도를 살펴보면 대학졸로 답한 경우가 46.4%로, 면허시험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79.7%로 가장 많았다. 숙련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45.4%으로, 친절도 또한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44.3%으로 가장 높았다. 학력, 면허시험장소, 숙련도, 친절도에 따른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 인지와는 관련이 없었다(Table 4).

5. 물리치료 경험에 따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차이 인지

물리치료 경험은 병·의원이 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만족도는 만족이 49.2%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경험한 치료는 온습포 치료가 37.9%, 전기치료가 37.6%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장소와 만족도, 치료 종류에 따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인지도는 관련이 없었다. 물리치료에 대한 기대 비용은 3만원 이하가 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대 비용에 따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차이 인지는 관련이 없었다(Table 5).

IV. 고찰

직무 만족도는 근무환경, 전문직종으로서의 의로기사직에 대한 이해와 긍지,^{9,10} 후생복지와 환자와 신뢰형성에¹¹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무만족도와 관련있는 전문직에 대한 긍지는 사회적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운동치료와 관련된 치료를 재활치료라 칭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전기치료와 관련된 치료를 물리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물리치료사가 단순한 통증조절만 하는 역할로 비취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치료사 본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되어 환자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활치료는 손상된 기능을 다시 되돌리는 뜻으로 아직 학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상을 받게 된 소아의 경우에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정량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차이를 인지하는지 알아본 결과 차이가 있다고 답한 대학생이 54.6%로 더 많았으며, 차이를 인지하였던 대학생 들 중 72%가 비보건계 학생들이었다.

Yang 등¹²은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학생의 79%가 비보건계 학생들에 비하여 물리치료사에 대한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재활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차이가 없다고 답한 경우가 보건계 학생들이 더 높은 결과로 살펴 볼 때 보건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재활치료라는 용어를 더욱 많이 접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동일하게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에 대한 차이점을 서술하는 항목에서는 재활치료에 대한 답은 손상된 기능 향상이 24.4%, 심한 손상을 치료한다고 답한 경우가 2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치료는 통증치료가 10%, 약한 손상에 대한 치료가 8.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를 서술하는 답의 빈도가 재활치료보다 전반적으로 적었다. 즉, 재활치료가 대상자들에게 더 많이 익숙한 용어가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물리치료의 이해 정도를 알아본 설문 결과에서 물리치료의 적응증으로 요통, 골관절염 등과 같은 통증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장애인 치료는 적게 나타난 Park 등¹³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렇게 물리치료를 단순한 손상이 있는 경우나 통증 치료로 인식하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은,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또는 스포츠 손상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대부분 재활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홍보용 매체에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각종 언론 매체에서 재활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상황일 지라도 재활치료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물리치료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전의 전기치료실, 운동치료실, 수치료실로 구분되었던 곳들이 전기치료를 물리치료실로 바꾸고 운동치료실로 되었던 곳을 특수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로 바꾸어 사용하는 곳도 있다. 좀 더 특수한 치료를 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환자들에게 심어 주기 위한 것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겼으리라 여겨진다.

물리치료사의 자격증 발급 기관에 대한 인지문항에서는 79.7%가 국가 면허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학교 교육이 46.4%, 전문대학 졸업이 39.7%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학교 교육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치료사에 대한 친절도나 숙련도는 보통이 각각 45.4%, 44.3%로 나타났다. Hong¹⁴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물리치료사는 친절하고 봉사하는

물리치료사가 43%로 물리치료사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친절도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물리치료사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물리치료사의 모습이라는¹⁵ 사실을 감안한다면, 병·의원에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숙련된 모습과 친절한 치료사의 모습이 좀 더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사법에 의한 국가 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는 것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은 치료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확한 인지도에 불구하고 재활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점 인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물리치료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면, 병·의원이 76.8%로 가장 많았으며, Yang 등¹²의 연구에서 졸업 후 취업 방향을 병원 및 개인 의원(22.8%)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경험한 물리치료가 병·의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취업방향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험한 치료는 온습포 치료와 전기치료가 각각 37.9%, 37.6%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종합병원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통증 치료를 주로 하는 지역 소재 개인 병원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으며, 질환도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험한 치료 대부분이 단순한 전기치로나 온습포 적용이 가장 높았던 점과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설명한 서술항목에서 물리치료를 통증치료나 전기치료로 표현하고 운동치료를 재활치료로 표현한 것은 환자의 경험으로 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기대비용도 3만원 이하가 38.1%로 가장 높았던 것은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치료 경험들이 단순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치료도 단순한 치료라 생각하고 비용도 이에 상응하게 낮게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물리치료 접근법 중의 일부분의 운동치료를 재활치료라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도 물리치료의 인식에 대한 혼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연구자들 중에는 재활운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며,¹⁶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재활전문가라고 칭하기도 한다.^{1,17} 따라서, 물리치료 학문에서 용어정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이 필요할뿐 아니라 모임을 통한 용어를 사회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국한된 지역 내에서 편의추출 하였고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설문지의 문항이 간단하여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차이점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의 인지도 및 재활치료에 관한 논문이 부족하여 비교 고찰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현재 혼용하고 있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자체 설문지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설문지 대상자들에게 이들 차이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지도와 재활치료와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학력, 면허주관기관, 친절도, 업무 숙련도를 살펴 본 결과 학력과 면허 주관 기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친절도와 숙련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료 경험은 주로 종합병원보다는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을 주로 방문한다고 하였으며, 온습포와 전기치료를 주로 받으며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는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차이점을 서술한 문항에서는 재활치료를 운동치료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물리치료는 통증치료로 이해하고 있었다. 넷째, 물리치료사에 인지도 및 치료경험, 기대도와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차이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전공에 다른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 따르면, 물리치료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운동치료를 재활치료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리치료사들은 운동치료를 수행할 때 자신이 물리치료사라는 것을 환자에게 분명하게 알리거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통하여 용어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및 다른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후속, 반복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Moon CY,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valu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rehabilitation therapist for disability student. A Jou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1.

2. Jung HK, Nam KW, Ryu YU et al. 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Seoul, Soo Mon Sa, 2012;6-15.
3. Kang JI, Ahn CS, Kong wt et al. 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Seoul, E-public, 2010;7-18.
4. Park WY, Kim WH, Lee KW. Factor analysis of core values of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J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2012;13(2):5901-8.
5. Moon JK, Song BK, Hwang BY.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mong physical therapists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 Korean Soc Phys Ther*; 2010;22(2):61-8.
6. Kim CY. The effect of patient's psychological distress on social support in physical therapists: focused on patient's regulatory focus. *Korean Soc Phys Med*. 2011;6(3):331-9.
7. Chung WG, Son AR, Jung HR et al. Cognition and perception of community members about dental hygienist's job.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6;6(4):403-17.
8. Rhee GM, Kim SY, Kwon SN. A study on recognition degree of horse therapy for autistic disorder's parents. *RESKO*. 2012;6(1):75-81.
9. Park SH, Jeong HS, Choi WH.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in chungbuk. *J Korean Soc Phys Ther*; 2002;14(4):487-97.
10. Lee KH, Jung B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J Korean Soc Phys Ther*; 2009;21(3):109-18.
11. Lee HS, Song HK, Kin HN et al. The study work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 in jeonnam east area. *J Korean Soc Phys Ther*; 2005;17(1):80-95.
12. Yang SH, Heo M, Kang YH et al. Research on perception of physical therapy between university students of health related departments and non health related department.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2;6(3):101-9.
13. Park HJ, Park RJ, Kim HS. A study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J Korean Soc Phys Ther*; 2000;12(2):175-84.
14. Hong WS. A survey on the understanding of high school teachers about physical therapist. *J Korean Soc Phys Ther*; 1991;13(1):39-58.
15. Kim EA, Lee GC, Bae WS et al.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physiotherapist and self esteem of physiotherapy students. *Korean Soc Phys Med*, 2013;8(1):19-27.
16. Kim SM, Song JM. The efficacy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exercise to improve physical function in old woman with knee arthritis. *J Korean Soc Phys Ther*; 2010;22(1):9-17.
17. Lee JH, Kim GY, Kim EJ et al. A study on the necessity of home visit rehabilitatin therapy by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work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J Korean Soc Phys Ther*; 2010;22(5):95-102.